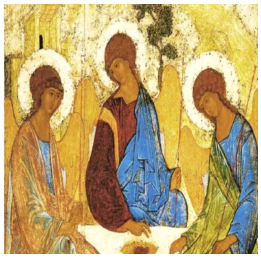

삼위일체
안드레이 루블로파作 1410년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탈출기 34,4ㄱㄷ-6.8-9

화답송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2코린토 3,11-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복음 | 요한 3,16-18

성가 | 입당성가 81 예물준비 340
영 성 체 165 파견성가 83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춘원 베드로	린다 김
권혁천 파비아노	이민재, 권순재
권혁천 파비아노	장해라 마리스텔라
김철영 미카엘	가족
강창성	강혜숙 바울라
유혁일 헨리	가족
신동환 아우구스티노	신동은 엘리사벳

생미사	봉헌
허강현 크리스토퍼 첫영성체	박크리샤
임아론 아론 첫영성체	박크리샤
정하진 아멜리아 첫영성체	박크리샤
김주원 요셉 첫영성체	박크리샤
서하연 프란치스코 첫영성체	한안나,데레사
이루리 모니카	이경자 율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민정신 아폴로니아 축일	성모회
박크리샤 축일	한안나, 데레사
이민재 크리스티나, 권순재 요한 레오나르도	김보현 엘리사벳
김지원 돔나, 김홍섭 루크	가족
황선 데이브	손명희 엘리사벳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신청:사무실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바자회 도네이션 모금 총금액 : $6,545

후원금: 신윤길, 익명8, 이영애레지나, 임노엘, 성프란치스코마을, 송준호, Fr.michael, Korean Marty'rs Fraternity, Jon K Lee, 주세정, 송명근고은경, 강혜숙바울라, 김성진, Linda Kim, 민완준, 구달회, Fr.가롤로, 진홍섭오도, 조남록, 윤요한, 배옥희, 최미양, 유희순, 안선정, 윤은수, 강호영, 박기목

***바자회 경품 확인 및 수령안내**
6월 18일(주일)까지 사무실에오셔 수령하지 않는 상품은 무효처리 됩니다. (오현아, 김린다, 김진섭, 최정현, 차로사)

▶어린이 첫영성체 예식

일 시	예 식	장 소	담 당
6/4(일) 08:30	첫영성체 준비	下성당	Sr.효주, 교육분과장
09:15	미사	대성당	신부님
미사후	축하식	친교실	청년분과

▶첫 고해성사 안내

일시: 5/28(오늘)부터 6/18(일)까지 매주일 8:40am부터
장소: 아래성당 고해소, 대상: 4/30 세례성사 받은분들

* 첫 고해는 세례 후 교회의 깊은 관심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연결하는 전례입니다.

▶예수 성가정회(FYMMY)회장 및 회원모집

젊은 부부들이 주님안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의지하는 모임입니다.
문의: 청년분과장 강토마스 310-413-1653 카톡: kangkenny

▶2023 청년성서모임 봄학기 그룹원모집

대상: 가톨릭 세례받은 청년
모집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마감: 6/11(일) 문의: 201-912-7577

▶6월 성경 공부 일정

목요반	6/8, 6/15, 6/22 10:10am-11:30am	효주 수녀
주일반	6/11 1pm-2:20pm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피아노 전공하신 본인, 또는 주변의 지인중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주일학교 교사모집 문의: 사무실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 지향	성찬 봉사	복사
6/4	정동주 유스토	민완준 필립보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한서희데레사 김승현마리아
6/11	백이백 아오스딩	김규헌 프란시스코	정유진 콘솔사아	정유진 콘솔사아	김종선 비비안나	이유채아멜리아 최예준사도요한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공지사항 기부 주보

선교봉헌카드: 성모의 밤에 봉헌

〈새 예비신자〉와 〈쉬는교우〉 찾기 선교봉헌 카드

본인의 가족, 친척, 또는 본인 주변의 지인중에 입교를 권할 분을 마음속으로 정한뒤, 아래 봉헌 카드를 작성하여 반쪽은 제출하고 나머지 반쪽은 잘 보이는곳에 두어 잊지 않고 기도해줍니다. 그분을 만날 때 겸손한 말씨와 태도로 대하여 신앙에 관심을 갖도록 돕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가톨릭에 입교를 권할 분을 관심있게 보며
그분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또한 저는 쉬는 교우들을 만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말씨와 태도로 대하며 그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1,8

자르는 선

✂

봉헌카드(성모의밤 전례중 봉헌)		봉헌카드(본인 보관용)	
새 예비신자 봉헌		새 예비신자 봉헌	
이름		이름	
쉬는 교우 봉헌		쉬는 교우 봉헌	
이름		이름	

봉헌자 이름, 세례명 _____ 봉헌자 이름, 세례명 _____

말씀의 향기

우리의 삶은 오늘도 '신비'롭다

김경식 미카엘
당진 주임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의 하나가 '신비'가 아닐까 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관해서도 '신비'라는 단어가 함께합니다. '신비'는 그저 모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체험하거나 깨달은 것이지만 정확히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노가 삼위일체론을 쓰다가 너무도 막막해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모래사장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그 구덩이에 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아이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이 구덩이에 바닷물을 다 옮기려구요!"라고 대답했고, 이에 아우구스티노가 "그건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하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교님께서 고민하시는 삼위일체 신비는 이보다 더 어렵지요!"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삼위일체의 신비를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비는 문고리 잡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즉, 신비는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신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의 온갖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어 사도들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었습니다.

옛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저 높이 계시는 분이셨고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러 왔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늘 하느님과 함께하도록 하십니다. 하느님은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렇듯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요한 4,11).

바울이